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 배지

2024. 9. 1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완전하신 나의 주”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후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0장 1~5절

다 같이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살아있는 생물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퍼져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과 공기만 있어도 어디에서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성경은 고대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인간들이 서서히 퍼져나가서 뿔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없이 뿔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도성들의 확산

사람들이 번성하여 많아지고 곳곳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도성이 건축되고 나라들이 생겨나며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성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들의 물 심판 이야기는 잊혀져 갔고 사람들은 더욱 교만해져 갔습니다. 세상의 성들은 더욱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정욕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종족의 확산

번성하는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번성과 다스림의 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인간보다 더 강력한 동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항상 두려움과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종족의 터를 견고히 하고, 자신들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지경만 넓혀 나갔을 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확장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적인 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복적인 것들 (먹고, 입고, 잘되는 것)만 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땅에만 고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처럼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불신앙의 확산

오늘 읽은 본문 이하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뿔어 나가면서 세워진 지명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6~7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뻗어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구역과 지켜야 될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인간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지지해 줄 우상이 필요했고 서서히 그들이 세운 지명들은 우상과 음행을 하게 되는 장소의 지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명들을 생각하면 그 지명에 맞는 우상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앙을 확산시킵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를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 다같이

1.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성이 건축되고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하나요? 서로 나눠봅시다.
3. 세상에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나눠봅시다.

중보기도 ----- 가정을 위해 ----- 다같이

- 1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되도록
- 2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가정이 되도록
- 3 각 가정에 질병과 근심, 걱정의 영이 떠나가도록
- 4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 5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마무리 기도 -----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만들었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